

강해진 광주FC, 2위 포항 상대 3연승 노린다

K리그1 13일 원정경기 김한길·정호연·엄지성 등 공격력 불 붙어 승리 기대 전남은 15일 부산과 대결

광주FC가 불붙은 공격으로 포항 원정경기에서 3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13일 오후 8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26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포항행을 준비하는 광주의 분위기가 뜨겁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김한길과 정호연의 원반 그리고 이건희의 머리로 골을 만들면서 3-0 승리를 만들었다. 수원FC 원정에 이은 2연승.

'승격 동기' 대전을 상대로 다득점에 성공한 광주는 골키퍼 김경민의 활약으로 무실점 승리까지 기록하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2위 포항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다운 과감한 공격으로 난적을 꺾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 15개의 슈팅을 날렸고, 이 중 9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다.

세 골 모두 잘 만들어진 골이라는 점도 의미 있다.

김한길은 허훈의 논스톱 힐패스를 넘겨받아 선제골을 장식했고, 정호연은 엄지성이 박스에서 넘긴 공을 원발로 연결해 골을 터트렸다. 이건희의 골에

도 엄지성이 있었다. 엄지성이 이민기에게 공을 넘겼고, 이민기는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 이건희의 머리에 골을 배달했다.

이민기-안영규-티모-두현석의 포백 라인과 골키퍼 김경민도 상대를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공격진에 힘을 실어줬다.

5위 광주(10승 7무 8패·승점 37)가 이번에 만나는 포항은 12승 9무 4패로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제카와 오베르단, 완델손, 그랜트의 외국인 선수들과 함께 김승대, 백성동, 하창래, 고영준, 이호재 등 국내 선수들로 밸런스를 잘 맞춘 포항은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최근 흐름도 좋다.

포항은 FC서울과의 지난 라운드 원정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하창래의 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뒷심도 보여줬다.

광주는 앞선 홈에서의 맞대결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지난 6월 3일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상대의 자책골과 함께 두현석, 엄지성, 안영규의 골로 4-2 승리를 만들었다.

뜨거운 광주가 포항 원정에서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8월을 승리로 연 전남드래곤즈는 주말 휴식 뒤 부산에서 연승을 노린다.

전남은 15일 오후 7시 30분 부산구덕축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K리그 26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앞서 25라운드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9분 터진 고태원의 득점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기록했다. 이 승리로 홈에서 9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전남은 적지로 가서 부산을 상대한다.



'승격 동기' 대전을 상대로 3-0 대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탄 광주가 13일 2위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연승을 노린다. 사진은 지난 16라운드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두현석의 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광주 선수들. <광주FC 제공>

전남은 10승 4무 9패(승점 34)로 7위에 자리하고 있고, 부산은 11승 8무 4패(승점 41)로 3위에 랭크됐다.

1위 김천상무를 승점 4점 차로 쫓고 있는 부산은 이번 여름 박동진, 민성기, 여름, 김정환, 강성윤 등

을 대거 영입하면서 선두 싸움에 불을 붙였다.

전남은 하남, 발디비아, 최성진을 내세워 '우승 후보'로 떠오른 부산의 골문을 정조준한다.

또 베테랑 김수범, 조지훈, 이석현과 신인 유지하, 노건우 등 신구의 조화를 바탕으로 원정길 승리

를 노린다.

앞선 승리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전남이 3위 부산을 상대로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3 전남 광양 전국장애인수영대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광양 성황스포츠허브에서 열린다. 지난대회 모습.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제공>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사전테스트 대회 열린다

전남장애인체육회 12·13일 광양서 장애인수영대회 개최 전국서 선수단 630여명 참가

11월 전국장애인체전 사전테스트이벤트 대회로 개최되는 '2023 전남 광양 전국장애인수영대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광양 성황스포츠허브에서 열린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 전라남도장애인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장애인수영연맹

승인대회로 17개 시도 선수단 600여명이, 전남에서는 3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18개 세부 종목에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눠 모든 경기에 예선 없이 타임레이스로 순위를 결정한다. 장애인 수영은 일반적인 수영 경기의 규칙을 장애인 선수에게 맞게 조정해 장애 유형에 따라 지체장애(S1-S10), 시각장애(S11-S13), 지적장애(S14), 청각장애 등 총 4개의 경기 등급으로 분류해 진행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광양 성황스포츠허브 수영장은 2023년 1월 개장한 수영장으로 개장 이래 첫 전국 규모 대회를 열게 됐다. 국제 및 전국대회 규격을

갖춘 3급 공인수영장으로 총면적은 5906㎡,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이며 50m 레인 열 개와 유아 풀, 449석의 관람석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김은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광양에서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가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대회를 오는 11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전초전이라 생각하고 장애인편의시설, 대회 운영, 기타 제반 사항들을 확인해 대회 개최를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흥서 전국대학실업 배드민턴 연맹전 개최

12일 개막... 선수단 1000명 참가

'2023 KB금융 전국대학실업배드민턴연맹전'이 12일부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과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함께 주최하고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와 장흥군배드민턴협회·공동 주관한다.

경기 종목으로는 대학, 실업 남녀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 및

관계자 1000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네이버 TV와 유튜브 채널이 실시간 라이브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며 장흥군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국에 어머니 품 정남진 장흥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우상혁, 세계육상선수권 우승하면 포상금 1억9200만원

대한육상연맹 포상금만 1억원

"말걸놓은 금메달을 찾아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며 유럽으로 떠난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웅인시청)이 자신의 목표와 한국 육상의 염원으로 2023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 포상금 1억9200만원을 받는다.

세계육상연맹은 10일(한국시간) 2023 세계선수권 포상금 규모를 공개했다.

개인 종목 우승 상금은 7만달러(약 9200만원)다. 2위는 3만5000달러(4600만원), 3위는 2만2000달러(2900만원)를 받는다.

상금 지급 대상은 상위 8명이다. 4위 1만6000달러(2100만원), 5위 1만1000달러(1450만원), 6위 7000달러(920만원), 7위 6000달러(790만원), 8위 5000달러(660만원)로 상금이 책정됐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특별 포상금 10만달러(1억3100만원)를 별도로 쟁긴다.

팀을 이뤄 달리는 계주 종목에서는 팀별로 1위 8만달러(1억500만원), 2위 4만달러(5250만원), 3위 2만달러(2600만원), 4위 1만6000달러

(2100만원), 5위 1만2000달러(1580만원), 6위 8000달러(1050만원), 7위 6000달러(790만원), 8위 4000달러(526만원)를 받는다.

대한육상연맹도 경기력향상금(포상) 규정에 세계선수권 상금을 명시했다.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면 1억원, 2위에 오르면 5000만원, 3위는 2000만원을 지급한다.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은 19일에 개막한다. 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 35분 남자 높이뛰기 예선을 치르고, 23일 새벽 2시 55분에 결선을 벌인다.

지난해 유진 세계선수권에서 우상혁은 2m35를 넘어, 2m37의 무타즈 에사 바르심(32·카타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당시 우상혁이 받은 포상금은 9600만원(세계육상연맹 4600만원+대한육상연맹 5000만원)이었다.

우상혁은 이번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상혁은 '한국 육상 최초 세계선수권 우승'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목표를 달성하면 명예와 부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2관 비공식작전
- 3관 엘리멘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 4관 밀수
- 5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시디어스: 빨간 문
-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9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7관 싸이클링 밀수, 바다 탐험대 옥도넷 어보브 앤 비온드 : 육지 넘어 하늘까지!
- 8관 싸이클링 더 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여름날 우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파랑새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2023. 8. 24 (목) - 26 (토)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CHUNG TRIO CONCERT

2023. 08. 26 (토) 17:00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